

# 《몽량록(夢梁錄)》역주(譯註)\*

- 권오(卷五) 상(上)

金敏鎬\*\*

## <목 차>

- \* 《몽량록(夢梁錄)》의 간략한 해제(解題)
- 1. 구월(九月) [부(附) 중구(重九)]
- 2. 명당(明堂)의 인년(禋年), 수레와 코끼리의 예행연습
- 3. 명당(明堂)에 오사(五使)와 집사관(執事官)을 보내다
- 4. 황제가 나와 어전(御殿)에 머물며 재계(齋戒)를 하다
- 5. 오로의식(五輅儀式)
- 6. 관리를 파견해 도신(道神)에게 제사지내고 도로를 청소하다
- 7. 천자가 경령궁(景靈宮)에 행차할 때의 의장(儀仗)

## \* 《몽량록(夢梁錄)》의 간략한 해제(解題)

남송(南宋)의 수도인 임안(臨安), 즉 지금의 항주(杭州)의 모습을 그린 《몽량록(夢梁錄)》은 송(宋) 오자목(吳自牧)이 지은 것으로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오자목은 남송 임안부(臨安府) 전당(錢塘) 사람으로 그의 생평(生平)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제목 ‘몽량록(夢梁錄)’은 ‘황량몽(黃梁夢)’ 고사에서 따 온 것으로 오자목은 자서에서 “지나간 일을 회고해보니 아마도 꿈이런가싶어 ‘몽량록(夢梁錄)’, 즉 ‘기장밥 지을 동안 꾸 꾸 꿈을 기록함’이라고 이

\* 《몽량록(夢梁錄)》 권일(卷一), 권이(卷二), 권삼(卷三) 역주(譯註)는 각각 《중국어문논역총간》 28집, 29집, 30집에, 권사(卷四)는 《중국어문학지》 41집에 게재되었음.

\*\* 한림대학교(翰林大學校) 중국학과(中國學科) 교수(教授).

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출판년도는 저자 오자목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갑술년(甲戌年: 1274년)으로 되어 있으나 남송이 멸망한 시기가 위왕(衛王) 상흥(祥興) 2년(1279년)이기에 아무래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학자들은 여기고 있다.

이 책은 맹원로(孟元老)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의 체례(體例)를 모방하여 남송 임안의 교묘(郊廟)、궁전(宮殿)、산천(山川)、인물(人物)、저자거리、물산(物產)、풍속(風俗)、잡희(雜戲)、사찰(寺刹)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남송 도시의 경제활동, 수공업, 상업발전, 시민의 경제, 문화생활 및 도성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풍부한 사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권5의 경우 분량이 많아 상과 하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 1. 구월(九月) [부(附) 중구(重九)]

세월은 쏜 살 같이 흘러, 눈 잠깐 돌리니 중구(重九)가 되었다. 대저 ‘구(九)’라는 숫자는 양수(陽數)로 그 날과 달이 모두 양수이기에 ‘중양(重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날 맹가(孟嘉)는 용산(龍山)에 올랐다가 모자를 떨어뜨렸고, 도연명(陶淵明)은 동쪽 울타리 아래 있는 국화 구경을 하였다가 것이 바로 이날의 고사(故事)이다. 요즘 사람들은 국화(菊花)와 수유(茱萸)를 술에 띄워 마시는데, 아마도 수유의 다른 이름이 ‘벽사옹(辟邪翁)’, 즉 ‘사악한 기운(邪氣)을 없애는 노인’이고, 국화는 ‘연수객(延壽客)’, 즉 ‘수명을 늘여주는 손님’이란 의미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복용하여 양구(陽九)의 액을 없애려 하는 것일 것이다.

매년 관례(慣例)대로 궁궐과 귀족 집안들은 모두 이날 국화 감상을 하였고, 사인과 서민들 역시 한두 그루를 사서 감상을 하였다. 그 국화는 종류가 7-8 종류 정도 있었는데, 향이 있으면서 오래가는 것과 그 뛰어난 것을 골라 말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황백색 꽃술이 마치 연방(蓮房) 같이 생긴 것을 일러 ‘만령국(萬齡菊)’이라 하였고, 분홍색은 ‘도화국(桃花菊)’, 희면서 중심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을 ‘목향국(木香菊)’, 순백(純白)이면서 큰 것은 ‘희용국(喜容菊)’, 황색이면서 둥그런 것은 ‘금령국(金鈴菊)’, 희면서 중심이 커다랗고 황색을 띠는 것은 ‘금잔은대국(金盞銀臺菊)’이라고 하였는데, 이 몇 종류가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받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날 도성의 가게들에서는 당면(糖麵), 증고(蒸糕) 위에 돼지고기나 양고기, 오리고기 등을 길게 찢어 잔뜩 올려놓고, 색견(色絹)으로 만든 조그만 깃발을 꽂아놓고는 이를 ‘중양고(重陽糕)’라고 불렀다. 궁궐의 각 방 및 귀족 집안들에서는 서로 이를 보내주었다. 밀전국(蜜煎局)은 오색(五色)의 쌀가루로 ‘사만(獅蠻)’, 즉 ‘사자(獅子)’를 끌고 가는 만인(蠻人)을 만들고 조그만 채색 깃발을 꽂아 두었다. 그 밑에는 찢 바과 고기 덩어리(肉杵)를 곱게 분말로 만들고, 사향(麝香)과 당밀(糖蜜)을 섞어 병고(餅糕)를 반죽해 작은 크기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혹은 오색의 탄아(彈兒)처럼 모두 운과(韻果)와 당상(糖霜)을 넣어 ‘사만울고(獅蠻栗糕)’라고 불렀다.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술을 올릴 때는 계절의 순서에 따라 하였다.

그 날 불교 사원에서는 여러 승려들에게 제공을 해주었다. 예전 동경(東京)의 경우 개보사(開寶寺)와 인왕사(仁王寺)에서 사자회(獅子會)를 개최하였다. 부처들과 보살(菩薩)들은 모두 사자를 부릴 줄 알았기에, 승려들 역시 모두들 사자 위에 앉아 불사(佛事)를 보았었는데, 항주성에서는 이런 사자회가 없었다.

## 九月 [重九附]

日月梭飛，轉盼重九。蓋九爲陽數，其日與月並應，故號曰‘重陽’。是日孟嘉登龍山落帽<sup>1)</sup>，淵明向東籬賞菊<sup>2)</sup>，正是故事。今世人以菊花，茱萸，浮於酒飲之，蓋茱

英名‘辟邪翁’,菊花爲‘延壽客’,故假此兩物服之,以消陽九之厄.年例,禁中與貴家皆此日賞菊,士庶之家,亦市一二株玩賞.其菊有七八十種,且香而耐久,擇其尤者言之,白黃色藥若蓮房<sup>3)</sup>者,名曰‘萬齡菊’,粉紅色者名曰‘桃花菊’,白而檀心<sup>4)</sup>者名曰‘木香菊’,純白且大者名曰‘喜容菊’,黃色而圓名曰‘金鈴菊’,白而大心黃者名曰‘金盞銀臺菊’,數本最爲可愛<sup>5)</sup>.兼之此日都人店肆,以糖麵蒸糕,上以猪羊肉,鴨子爲絲簇釘<sup>6)</sup>,插小綵旗,名曰‘重陽糕’.禁中閣分及貴家相爲饋送.蜜煎局以五色米粉塑成獅蠻<sup>7)</sup>,以小綵旗簇之,下以熟栗子肉杵<sup>8)</sup>爲細末<sup>9)</sup>,入麝香糖蜜和之,捏爲餅糕小段,或如五色彈兒,皆入韻果糖霜,名之‘獅蠻栗糕’,供襯<sup>10)</sup>進酒,以應節序.

- 1) 멩가등룡산락모(孟嘉登龍山落帽): 《진서(晉書)》 권98 < 멩가전(孟嘉傳) > 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다. “중양절(重陽節)에 환온(桓溫)이 형주(荊州)의 용산(龍山)에서 막료(幕僚)들을 모두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 바람이 불어 멩가의 모자가 날아갔음에도 멩가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환온은 옆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멩가가 어떻게 하나를 보고자 하였다. 멩가는 한참 후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 환온은 멩가의 자리에 모자를 갖다 놓게 하고 손성에게 멩가를 놀리는 글을 짓게 하였다. 멩가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이를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답글을 썼는데 그 문장이 무척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찬탄을 하였다(重之九月九日, 溫燕龍山寮佐畢集時, ... 有風至吹嘉帽墮落, 嘉不之覺. 溫使左右勿言, 欲觀其舉止. 嘉良久如廁, 溫令取還之, 命孫盛作文嘲嘉著嘉坐處. 嘉還見, 即答之. 其文甚美, 四坐嗟歎).”
- 2) 연명향동리상국(淵明向東籬賞菊): 술을 좋아하였던 도연명(陶淵明)은 가난하여 술을 살수가 없었다. 9월 9일 울타리 아래 있는 국화를 따며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강주(江州) 태수(太守) 왕굉(王宏)이 술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 고사에 대해 노래한 시인들은 많지만 도연명의 < 음주시(飲酒詩) > 중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캐고,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란 구절이 가장 유명하다.
- 3) 연방(蓮房): 연꽃이 피고 난 후에 남은 꽃받침으로 원추형이다. 작은 구멍들이 마치 각각의 방처럼 나뉘어 있기에 연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4) 단심(檀心): 열은 붉은 색의 꽃술.
- 5) 여기 나온 국화 관련 상황은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권8 < 중양(重陽) > 조에도 나온다.
- 6) 족정(簇釘): 꽃아서 장식하다. ‘정(釘)’은 원래 ‘식품을 그릇에 담아두다’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늘어놓기 위해 그릇에 담아두는 것을 의미하여 여기에서 ‘장식하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 7) 사만(獅蠻): 김영지(金盈之)의 《신편취옹담록(新編醉翁談錄)》 권4에서 ‘사만(獅蠻)’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문수보살이 사자상을 타고 있고, 이를 남쪽 오랑캐 만인(蠻人)이 끌고 간다[爲文殊菩薩騎獅子像, 蠻人牽之].”
- 8) 육저(肉杵): 일반적으로 남성 성기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고기 덩어리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 보인다.
- 9) 세말(細末): 곱게 가루로 만들다. 세분(細粉)과 같은 의미.
- 10) 공襯(供襯): 제공하다. 공급하다.

其日諸寺院設供衆僧。頃東都有開寶<sup>11)</sup>，仁王寺院設獅子會，諸佛菩薩皆馭獅子，則諸僧亦皆坐獅子上作佛事，杭都却無此會也。

## 2. 명당(明堂)의 인년(禋年), 수레와 코끼리의 예행연습

명당(明堂)의 대제(大祭)는 삼 년에 한 번 있었다. 봄의 첫머리에 “9월의 첫 번째 신일(辛日)에 천지에 커다란 잔치[大饗]를 벌여 조종(祖宗)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아! 당신들 백관들이여, 각각 자신의 직책에서 분발하기 바라오.”라고 천하에 명당(明堂)의 제전(祭典)을 행한다는 조칙을 반포하였다. 이는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여름의 첫머리에는 진흙탕 길 보수를 하였다.

삼위병(三衛兵)과 우림병(羽林兵)을 선발하여,  
 천가(天街)를 고운 슯돌처럼 반질반질하고 평평하게 만든다네.  
 황도(黃道)의 중간을 해와 달처럼 밝게 밝히고,  
 황제가 타신 법가(法駕)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엄하게 대비한다네.  
 [選差三衛羽林兵，營築天街砥樣平，黃道中間明日月，備嚴法駕欲安行.]

두 달 전부터 수레와 코끼리의 예행연습을 하였다. 그 수레는 매일 태묘(太

11) 개보(開寶): 개보사(開寶寺)는 북제(北齊) 시기 창건되었던 독거사(獨居寺)이다. 당대 현종(玄宗) 시기 봉선사(封禪寺)로 이름을 바꾸고, 송대 태조(太祖) 개보(開寶) 3년(970)이 이름으로 바뀐다. 경내가 넓고, 24개의 탑원(塔院)이 있으며, 특히 8각 13층의 높이 360척(약 115미터)에 달하던 목탑(木塔)은 당시 개봉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탑을 세운 지 56년 만에 버락을 맞아 불타버리고, 황우(皇祐) 원년(1049) 송 인종(仁宗)은 화재를 피하기 위해 원래 탑이 있던 곳의 동쪽에 있던 이산(夷山) 위에 목탑의 양식을 본따 20년의 세월 동안 탑을 쌓았다. 그 탑은 8각 13층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높이가 55미터이고, 벽돌의 색이 고통색으로 멀리서 보면 철로 세워놓은 탑과 같다고 하여 철탑(鐵塔)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개보사는 지금 우국사(祐國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廟) 앞에서 여정문(麗正門)까지 갔다가 거로원(車輅院)으로 되돌아갔는데, 매일 한 번씩 왕복을 하며 예행연습을 하였다. 근열거(僅閱車) 등은 그 수레마다 반드시 철 천근(千斤: 약 633kg)을 실었다. 남교(南郊)에 제사를 지내는 해가 되면 다섯 대의 수레로 연습을 하였다. 이는 바로 다음을 이름이었다.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 의장용 수레, 그리고 오색(五色) 바퀴들,  
 코끼리 두 마리 채색 비단 끈으로 구름 마차를 끈다네,  
 멀리서도 황제의 위세가 높고 대단함을 알겠느니,  
 정철(精鐵)은 웅당 만근(萬斤)의 무게가 될 것이라네.  
 [輅馬儀車五色輪, 雙扶綵率稔擊雲, 遙知帝勢巍巍重, 精鐵應須壓萬斤.]

그 명당의 인년(禪年)에는 수레 한 대만으로 옥로(玉輅)를 대신하였다. 그 의식(儀式)의 제도(制度)는 다음과 같았다. 수레 위에는 청기(靑旗) 두 면, 고(鼓) 한 면을 설치하였고, 몇 마리의 말로 끌게 하였다. 그 수레를 양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은 모두 자삼(紫衫)에 모자(帽子)를 착용하고 있었다. 수레 앞 몇 명은 채찍질을 하며 수레를 몰았고, 앞 옆에는 주기(朱旗)가 수십 면, 동라(銅鑼)와 비고(鼙鼓)가 십수 면 있었는데, 깃발을 든 사람들과 고를 치는 사람들은 모두 자삼에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뒤에는 커다란 코끼리 두 마리가 있었는데, 코끼리마다 교각복두(交脚幞頭)를 쓰고, 자삼을 입은 사람이 한 명씩 코끼리 머리에 걸터앉아 코끼리를 부렸다. 그들은 손에 짧은 손잡이의 은곽(銀鑲)을 쥐고 있었는데, 말을 안 듣는 코끼리가 있으면 날이 선 그것으로 내리쳤다. 태묘(太廟) 앞 및 여정문(麗正門) 앞에 이르면 곱을 사용하여 돌게 하였는데 몇 걸음을 떼면 열을 지었다. 그리고 배례(拜禮)를 올리게 하였고, 또한 소리로 읊(揖)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하였다. 어가(御街)는 구경꾼들로 가득하였고, 시정(市井)에서는 흙이나 나무로 조그마한 코끼리 모양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 도박에 거는 물건으로 삼았고, 외지인들은 이를 토산품으로 사가지고 돌아가 선물로 주었다.

## 明禋年<sup>12)</sup>預教習車象

明堂<sup>13)</sup>大祀, 三年一次. 春首頒詔天下明禋. “以九月上辛日<sup>14)</sup>大饗天地, 侑<sup>15)</sup>以祖宗, 咨爾<sup>16)</sup>百官, 各揚乃職.” 此循隋唐制也. 夏首修築泥路, “選差三衛羽林兵, 營築天街砥樣平<sup>17)</sup>, 黃道中間明日月, 備嚴法駕欲安行.” 預於兩月前教習車象. 其車每日往來, 歷試於太廟前, 至麗正門, 回車輅院<sup>18)</sup>一次. 若僅閱車, 每車須用鐵千斤<sup>19)</sup>壓之. 如郊禋之歲, 以車五乘教習<sup>20)</sup>. 正謂輅馬儀車五色輪, 雙扶綵率稔擊雲. 遙知帝勢巍巍重, 精鐵應須壓萬斤.” 其明禋年, 止一車以代玉輅. 儀注<sup>21)</sup>, 車上置青旗二面, 鼓一面, 駕以數馬, 挾車衛士皆紫衫帽子. 車前數人, 擊鞭行車, 前列朱旗數十面, 銅鑼鑿鼓十數面, 執旗鼓人, 俱服紫衫帽子. 後以大象二頭, 每一象用一人, 裹交脚幞頭, 紫衫, 跨象頭而馭, 手執短柄銀鑊, 尖其刃, 象有不馴者擊之.

- 
- 12) 명인년(明禋年): ‘명인(明禋)’은 ‘깨끗하고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명인년이란 명당(明堂)에서 삼년에 한 번 대제(大祭)를 지내는 그 해를 의미한다.
- 13) 명당(明堂): 황제가 정교(政教)를 선포하던 곳으로, 조회(朝會), 제사, 선사(選士), 교학(敎學) 등의 대전(大典)을 모두 이곳에서 거행하였다. 송대의 경우 대경전(大慶殿)을 명당이라고 하였고, 그 곳에서 남교(南郊)에서와 같이 천자가 직접 제사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 14) 구월상신일(九月上辛日): 9월의 첫 번째 신일(辛日). 한대(漢代) 이후 9월에 명당(明堂)에서 제의(祭儀)가 행해지게 되었다. 송대 명당에서 행해졌던 50회 가까운 제사를 보면 예외 없이 모두 9월의 첫 번째 신일에 거행되었다. 송대에는 이날 남교(南郊)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냈다.
- 15) 유(侑): 보답하다.
- 16) 자어(咨爾): 《논어(論語)》<요왈(堯曰)> 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요임금이 말씀하시길, 아! 너 순아, 하늘의 순서가 너의 몸에 있구나[堯曰: 咨, 爾舜, 天之歷數在爾躬].” ‘咨’는 감탄사로 ‘아아!’ 정도의 의미이고, ‘이(爾)’는 ‘너, 당신’의 의미이다. 후에 ‘자어(咨爾)’는 함께 문장 앞에 놓이면서 찬탄이나 명령의 어기를 나타내었다.
- 17) 지양평(砥樣平): 숫돌처럼 평평하다. ‘지(砥)’는 고운 숫돌이고, 거친 숫돌은 ‘려(礪)’라고 한다.
- 18) 거로원(車輅院): 거부(車府) 혹은 오로원(五輅院)이라고도 한다. 황제가 각종 의식을 거행할 때 필요로 하는 수레 등의 물품을 관장하였는데 항주성(杭州城) 가회문(嘉會門)의 남쪽에 있었다.
- 19) 근(斤): 송대의 1근은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633g 정도에 해당한다.
- 20) 이거오승교습(以車五乘敎習): 명당에서는 옥로(玉輅) 한 대만으로 하였으나, 남교(南郊)의 경우 이 외에 금로(金輅), 상로(象輅), 목로(木輅), 혁로(革輅) 등 오로(五輅)를 모두 사용하였다.
- 21) 의주(儀注): 의제(儀制). 의식의 제도.

至太廟前及麗正門前，用鑿使其圍轉，行步數遭，成列，令其拜，亦令其如鳴喏之勢。御街觀者如堵。市井撲賣<sup>22)</sup>土木粉捏粧綵小象兒，并紙畫者，外郡人市去，爲土宜<sup>23)</sup>遺送。

### 3. 명당(明堂)에 오사(五使)와 집사관(執事官)을 보내다

명당의 대제에는 대례사(大禮使), 예의사(禮儀使), 의장사(儀仗使), 노부사(鹵簿使), 교도돈체사(橋道頓遞使) 및 섭시중(攝侍中), 대종백(大宗伯), 태상소경(太常少卿), 진접대규(進接大圭), 진작(進爵), 진생(進牲), 진책(進冊), 봉책(捧冊), 독책관(讀冊官), 태상승(太常丞), 협률랑(協律郎), 광록경승(光祿卿丞), 봉폐관(捧幣官), 여러 재집(宰執)들의 배사관(陪祀官), 분헌공신관(分獻功臣官), 구궁귀신(九宮貴神), 십이궁신(十二宮神), 뭇 별들의 배사관(陪祀官), 분사사직관(分祀社稷官), 집수관(執紼官), 총무관(總務官) 및 순경(巡警), 도순검사(都巡檢使), 그리고 여러 집사관(執事官)들을 모두 칙첩(勅牒)을 갖추어 파견하였다. 제사가 끝나는 날에는 각각 포상을 하였는데, 금은과 명주를 차등하여 지급하였고, 행궁(行宮)에도 돌렸다.

그 총무관(總務官)은 맡은 일이 아주 번잡하였는데, 그 모두가 직접 제단(祭壇)과 관련되는 사무였고,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직접 가서 보고 점검하였다. 예를 들자면 제기(祭器)를 닦는 것 같은 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 제물로 바치는 곡식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척관(滌官)을 만나 곡식을 먹여 통통하게 살이 오른 희생(犧牲)을 엄격하게 골라 향음주(鄉飲酒)의 공물(供物)로 추천하였다. 이어서 문사고(文思

22) 매박(賣撲): 송원 시기 도박의 일종. 일반적으로 동전을 던져서 했는데, 동전의 앞뒷면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 도박의 상품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하였다.

23) 토의(土宜): 토산품.

庫), 군기고(軍器庫), 법물고(法物庫) 등에 가서 의장(儀仗)들이 결함 없이 정비(整備)되어 있는지, 법물(法物)들은 빛이 나게 닦여져 있는 지를 점검하여 경건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기일(期日)이 되기 전에 닦고 받들며, 강일(剛日)을 점친다네.  
장작대장(將作大匠)을 시켜 바야흐로 일을 일으켜,  
단당(壇堂)을 손보고 나니 아주 새롭구나.  
[前期修奉卜剛辰, 役使大匠方興作, 修整壇堂十分新.]

수부(帥府)를 시찰(視察)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에 쓰일 술 빛는 것을 엄격히 감독하였다.

반드시 황금빛 휘장을 둘러 엄격하게 보호하고  
성심성의껏 제사에 쓰일 향(馨香)을 진설한다네.  
[須用黃幄嚴圍護, 誠心供饗薦馨香.]

태상(太常)이 기(旂), 상(裳), 조(組), 수(繡) 등의 제구(祭具)들을 관리, 감독하고 금슬(琴瑟)과 종(鐘), 경(磬)의 음악을 감독하였다.

황제의 수레 보물로 꾸며 그 빛을 더 나게 하려하고,  
황금별 수백 개를 촘촘하게 박아 넣었네.  
몸소 공정(工程)을 감독하니 폐단은 찾아볼 수 없다네.  
공사비용을 아낄 뿐 아니라 화려함 또한 눈이 부신다네.  
[寶裝鑿輅欲增明, 例耗黃金數百星, 躬督工程無弊蠹, 不惟省費又晶熒.]

한원(翰苑)이 널리 전해 악장(樂章)을 올리니,  
신과 인간이 모두 조화롭게 어울린다네.  
백직(百執)과 종신(宗臣)은 태상(太常)에게로 가고,  
의범(儀範)을 교습(敎習)하여 각각 응당 공손하다네.  
하늘이 떠들썩하게 연주함에도 품절(品節)이 따르나니,  
절제할 줄 알아 구장(舊章)을 함부로 어지럽히지 말기를.  
[翰苑鴻傳進樂章, 和格神人皆允洽, 百執宗臣赴太常,

教習儀範各宜恭，聒天雜奏隨品節，節止毋令亂舊章.]

오사(五使) 이하는 공원(貢院)에 모였다.

笙(笙)과 용(鑞), 그리고 금슬(琴瑟)을 악사(樂師)가 다루니,  
팔음(八音)이 경쟁하듯 연주하나 곡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네.  
제단(祭壇)을 상상해보니 봉황(鳳凰) 같은 위엄을 갖추고 있다네.  
[笙鑞琴瑟按工師，八音競奏無違節，想像靈壇率鳳儀.]

오사(五使)는 백관(百官) 및 집사관(執事官)을 상서성에 모아서 경령(景靈),  
태묘(太廟), 명당(明堂)의 의식을 합동으로 연습시켰다. 예를 들어 교사(郊祀)  
같은 것은 교단(郊壇)의 의식(儀式)을 교단(郊壇)에서 교습시켰다.

장(璋)을 받들고, 덕(德)을 지닌 것이 마치 신(神)이 옆에 계신 것 같고,  
의형(儀刑)을 받들지 않아 불만하다네.  
칙령(勅令)으로 파견한 태사(太社)에게 땀나물을 쌓도록 지시한다네.  
[奉璋秉德如神在，匪事儀刑欲可觀，勅差太社令積薪.]

신(神)을 모실 자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壇)에 올라 락(茅)을 엮었  
다.

황제의 뜻을 경모(敬慕)하여 엄숙하게 제사를 받들고,  
제단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한다네.  
[仰止宸衷嚴祀事，掃清壇壝不留塵.]

총무관(總務官)은 황제 옆에 두 손을 맞잡고 서있었다.

황제의 수레와 함께 정궐(正闕)에 들어가며,  
어로(御路)를 몇 번이고 살펴보다 묘궁(廟宮) 앞에 멈추네.  
도성 사람들 이를 보고 만세(萬歲)를 외친다네.  
[秉輅進呈入正闕，歷試御路止廟宮，都人觀瞻稱萬歲.]

오사(五使)와 백관(百官)들은 도당(都堂)에 가서 서계(誓戒)를 받았다.

형옥(刑獄)을 관장하는 추경(秋卿) 얼음과 서리처럼 차갑게 의립(儀立)해 있고, 문무관(文武官)들 위계 따라 정사당(政事堂)에 촘촘하게 늘어서 있다네. 제사 관련 일들 상급(上級) 명령 엄격하여 반드시 서계(誓戒)를 해야 하니, 삼가 귀 기울여 들으니, 누가 감히 엄숙하고 공손하지 않으리오. [秋卿儀立凜氷霜, 森列朝班政事堂. 祀事旨嚴須誓戒, 聳聽誰敢不齋莊.]

숙재(宿齋)하는 날에는 국척(國戚)들이 궁궐에 들어오는 것을 공문을 통해 금지하여 궁궐 내의 지켜야 할 사항들을 보호하였다.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평장(平章)은 백관 및 배사관(陪祀官) 등을 이끌고 궁궐로 들어왔다. 주상(主上)께 주청(奏請)하여 대경전(大慶殿)에서 치재(致齋)를 하였다.

위사(衛士)들 강철 옷 입고, 관리들은 패(珮)를 차네. 행궁(行宮)에서의 재계(齋戒)는 전범(典範)을 따른다네. [衛士鐵衣官結珮, 帷宮齋潔於儀刑.]

## 明堂差五使執事官

明禋, 差大禮使<sup>24)</sup>, 禮儀使, 儀仗使, 鹵簿使, 橋道頓遞使, 及差攝侍中<sup>25)</sup>, 大宗伯<sup>26)</sup>, 太常少卿, 進接大圭, 進爵, 進牲, 進冊, 捧冊, 讀冊官, 太常丞, 協律郎, 光祿卿丞, 捧幣官, 諸百執陪祀官, 分獻功臣官, 九宮貴神, 十二宮神, 諸星陪祀, 宜

24) 대례사(大禮使): 대례(大禮)는 교사(郊祀)에서의 예를 말한다. 대례사는 이 제사의 의식 일체를 총괄하는 자로 재상 중에 선임하였다. 이외에 예의사(禮儀使), 노부사(鹵簿使)는 학사(學士)가, 의장사(儀仗使)는 어사중승(御史中丞)이, 교도돈제사(橋道頓遞使)는 북송의 경우 지개봉부(知開封府)가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대례사와 함께 오사(五使)라고 총칭하였다.

25) 시중(侍中): 시중은 송대 들어오면 허관(虛官)이 되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겸 문하시랑(門下侍郎)이 그 직책을 겸하였고, 정일품에 해당하였다.

26)大宗伯(大宗伯): 예부상서로 예악(禮樂), 제사, 조회(朝會), 연악(宴樂), 학교, 공거(貢擧) 등의 정무를 담당하였으며 종이품에 해당하였다.

分祀社稷官, 執綏官, 總務官, 及巡警, 都巡檢使, 及諸執事官, 俱敕牒差. 候禮成日, 各推賞錫, 賜金銀·絹匹有差, 仍轉行宮. 而其總務官<sup>27)</sup>, 職任甚繁, 皆親歷壇壝<sup>28)</sup>事務, 事無大小, 俱親點視也. 如擦祭器, 滌濯無垢, 以奉粢<sup>29)</sup>盛. 次視滌官<sup>30)</sup>, 得其牲牢豢養肥豐, 以嚴薦饗. 繼往文思, 軍器, 法物等庫, 點視儀仗, 整備無缺, 法物頓增光彩, 以表虔恭. “前期修奉卜剛辰<sup>31)</sup>, 役使大匠<sup>32)</sup>方興作, 修整壇堂十分新.” 點察帥府, 嚴差官吏, 監造醞五齊<sup>33)</sup>, “須用黃幄嚴圍護, 誠心供饗<sup>34)</sup>薦馨香<sup>35)</sup>.” 修視太常<sup>36)</sup>旂<sup>37)</sup>裳<sup>38)</sup>組<sup>39)</sup>繡之具, 琴瑟鐘磬之樂, 監督“寶裝鑾輅欲增

- 
- 27) 총무관(總務官): 《송사(宋史)·직관지(職官志)》의 태상시(太常寺)와 비교해 읽어보면, 총무관은 태상박사(太常博士), 교사령(郊社令)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28) 단유(壇壝): 제단(祭壇).
- 29) 자(粢): 제물로 바치는 곡식.
- 30) 시척관(視滌官): 척관(滌官)은 희생(犧牲)을 씻는 광록시(光祿寺)의 책임자로 여겨진다. ‘시(視)를 총무관(總務官)이 척관을 만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척관(視滌官)이란 직책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데, 여기서는 우선 앞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 31) 강진(剛辰): 강일(剛日). 강일이란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에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이 들어간 날로, 이 날은 양(陽)에 해당하는 날이므로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32) 대장(大匠): 대장은 궁실, 성곽 등의 건설을 책임진 장작감(將作監)의 우두머리인 장작감감(將作監監)의 약칭(略稱)이다. 다른 관문들에는 ‘대장(太匠)’으로 되어 있으나 송대 관제 사전에는 ‘대장’이란 명칭이 보이지 않기에 사고전서 본에 있는 그대로 ‘대장’으로 표기하였다.
- 33) 오제(五齊): 이전에 술의 맑고 탁함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합쳐서 ‘오제(五齊)’라고 불렀고, 후대에 이르러 술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 34) 공향(供饗): 공형(供亨)이라고도 하며, 제사에 쓰일 공품(供品)을 진설하는 것.
- 35)馨향(馨香): 제사용으로 쓰이는 기장[黍稷].
- 36) 태상(太常): 종묘(宗廟)의 제사, 예악(禮樂) 및 문화 교육을 관장하던 관리.
- 37) 기(旂): 고대 구기(九旗) 중의 하나로 교차하는 용 두 마리를 그려 놓고, 깃대 머리에 방울을 달아 놓은 왕후(王侯)의 기치(旗幟). 《주례(周禮)·춘관(春官)·사상(司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상(司常)은 구기(九旗)의 물명(物名)을 관장하는데 각각 나라 일에 따라 사용되었다. 해와 달이 있는 것을 상(常)이라 하고, 두 마리 용이 엮갈려 있는 것을 기(旂)라 하며, 통백(通帛)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旛), 잡백(雜帛)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物), 곰과 호랑이가 있는 것을 기(旗), 새와 새매가 있는 것을 여(旞), 거북과 뱀이 있는 것을 조(旄), 전우(全羽)인 것은 수(旛), 석우(析羽)인 것을 정(旌)이라 하였다[司常掌九旗之物名, 各有屬以待國事: 日月爲常、交龍爲旂、通帛爲旛、雜帛爲物、熊虎爲旗、鳥隼爲旞、龜蛇爲旐、全羽爲旛、析羽爲旌.]”
- 38) 상(裳): ‘상(常)’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구기 중의 하나로 일월(日月)을 그려 놓고, 깃대 머리에 방울을 달아 놓은 왕후(王侯)의 기치(旗幟).
- 39) 조(組): 고대 허리 에 차는 인끈(印綬). 《한서(漢書)·엄조전(嚴助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폐하께서는 사방 1촌의 인신(印信)과 2장 길이의 조(組)로써 나라 밖[方

明, 例耗黃金數百星, 躬督工程無弊蠹<sup>40)</sup>, 不惟省費又晶熒. 翰苑<sup>41)</sup>鴻傳進樂章, 和格神人皆允洽<sup>42)</sup>. 百執宗臣赴太常, 教習儀範各宜恭. 聒天維奏隨品節, 節止毋令亂舊章.” 五使<sup>43)</sup>以下, 集於貢院<sup>44)</sup>, “笙鑪<sup>45)</sup>琴瑟按工師<sup>46)</sup>, 八音<sup>47)</sup>競奏無違節, 想像靈壇<sup>48)</sup>率鳳儀.” 五使集百僚及執事官於尙書省, 集習景靈·太廟·明堂儀. 若郊祀, 習郊壇<sup>49)</sup>儀於郊壇, “奉璋<sup>50)</sup>秉德如神在. 匪事儀刑欲可觀, 勅差太社<sup>51)</sup>令積薪.” 掃設神席, 升壇束茅, “仰止<sup>52)</sup>宸衷<sup>53)</sup>嚴祀事, 掃清壇壝不留塵.” 總務官拱立於龍墀<sup>54)</sup>, “秉輅進呈入正闕, 歷試<sup>55)</sup>御路止廟宮, 都人觀瞻稱萬歲.” 五

外)까지 어루만지십니다.” 안사고(顔師古)가 주를 달았다. “조(組)라는 것은 인끈[印綬]이다[陛下以方寸之印, 丈[二之組, 填撫方外.]顔師古注: “組者, 印綬.)”

- 40) 폐두(弊蠹): 병폐(病弊). 폐단(弊端). ‘두폐(蠹弊)’라고도 한다.
- 41) 한원(翰苑):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한회채지처(文翰薈萃之處)’ 다시 말해 ‘문장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데 한림원(翰林院)의 별칭으로도 쓰인다. 여기서 한림원의 의미로 쓰였는지는 미상.
- 42) 윤희(允洽): 협조하다. 화합하다.
- 43) 오사(五使): 당송(唐宋) 시기 대전(大典)을 행할 때 배치하던 다섯 관직으로 모두 대신(大臣)을 임명하였다. 송(宋) 송민구(宋敏求)의 《춘명퇴조록(春明退朝錄)》 권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남교(南郊)에서 대례(大禮)가 있을 때마다 당나라 제도를 본 따 오사를 임명하였다. 제상을 대례사(大禮使)로 하고, 학사(學士)를 의례사(儀禮使), 노부사(鹵簿使)로 하였으며, 어사중승(御使中丞)을 의장사(儀仗使), 개봉부윤(開封府尹)을 교도돈체사(橋道頓遞使)로 하였다[每南郊大禮, 循唐制命五使. 宰相爲大禮使, 學士爲儀禮使, 鹵簿使, 御使中丞爲儀仗使, 知開封府爲橋道頓遞使.]” 자세한 사항은 송(宋) 조승(趙昇)의 《조야류요(朝野類要)·전례(典禮)·오사(五使)》를 참고할 것.
- 44) 공원(貢院): 송대 과거 시험을 관장하던 기구와 과거를 보았던 장소.
- 45) 용(鑪): 큰 종의 일종.
- 46) 공사(工師): 악사(樂師).
- 47) 팔음(八音): 고대 악기의 통칭. 일반적으로 고대 악기는 금속(金), 돌(石), 실(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 등 여덟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 48) 영단(靈壇): 제단(祭壇).
- 49) 교단(郊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으로 쌓은 단으로 남쪽 교외(郊外)에 설치하였다.
- 50) 장(璋): 옥기(玉器)의 일종으로 홀(圭)을 반으로 쪼개놓은 형상이다. 제사, 상례(喪禮), 치군(治軍) 등의 경우 예기(禮器)로 사용되었다.
- 51) 태사(太社): 천자(天子)가 백성들을 위해 토지신과 곡신(穀神)에게 제사를 올려 복을 구하고, 업적을 보고하기 위해 지은 장소.
- 52) 양지(仰止): 경모(敬慕)해 마지않다. 매우 앙모(仰慕)하다.
- 53) 신충(宸衷): 제왕(帝王)의 심의(心意).
- 54) 용지(龍墀): 단지(丹墀). 붉은 칠을 한 궁전 앞의 섬돌. 여기서 뜻이 인신(引伸)되어 황제를 가리키기도 한다.
- 55) 역시(歷試): 누차에 걸쳐 시험하다. 여러 차례 살펴보다.

使百僚，赴都堂受誓戒<sup>56</sup>。“秋卿<sup>57</sup>儀立凜冰霜，森列朝班<sup>58</sup>政事堂。祀事<sup>59</sup>嚴須誓戒，聳聽誰敢不齋莊<sup>60</sup>。”宿齋<sup>61</sup>之日，宣押<sup>62</sup>國戚<sup>63</sup>入禁中，守護內鑰事務。晡時<sup>64</sup>，平章<sup>65</sup>率百官及陪祀官等入內，奏請主上致齋<sup>66</sup>於大慶殿。“衛士鐵衣官結珮，帷宮<sup>67</sup>齋潔<sup>68</sup>於儀刑<sup>69</sup>。”

#### 4. 황제가 나와 어전(御殿)에 머물며 재계(齋戒)를 하다

명당에서 대재(大齋)를 지내기 3일 전, 평장(平章), 재집(宰執)들은 백관(百官)을 이끌고 삼가 주상(主上)께 대경전(大慶殿)에 머물며 치재(致齋)를 하도록 공손하게 청하였고, 백관들은 반(班)에 의탁하였다.

- 
- 56) 서계(誓戒): 나라의 큰 제사를 7일 앞두고 제관(祭官)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서약하던 일. 술과 고기를 금하고, 가무·조상(弔喪)·문병을 하지 않으며, 형벌과 형살(刑殺)을 처리하지 않고 몸을 깨끗이 갖되, 이를 어길 경우 일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57) 추경(秋卿): 형옥(刑獄)을 관장하던 관리들을 추관(秋官)이라 하였는데, 추경(秋卿)은 이 관리들 중 최고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58) 조반(朝班): 고대 신하들이 황제를 알현할 때 관품(官品)과 문무관(文武官)의 신분에 따라 나누어 배열(排列)하던 위계. 일반적으로 관품이 높을수록 황제와의 거리가 가까웠다.
- 59) 지(旨): 상급(上級)의 명령. 황제의 조서(詔書).
- 60) 재장(齋莊): 엄숙하고 공경스런 모습.
- 61) 숙제(宿齋): 고대 제사 등의 예식을 하기 전에 거행하는 재계(齋戒).
- 62) 선압(宣押): 조정에서 서명한 공문으로 선포하다.
- 63) 국척(國戚): 천자의 외척(外戚)으로 주로 후(后), 비(妃)의 가족을 가리킨다.
- 64) 포시(晡時): 신시(申時), 오후 3-5시, 해질 무렵.
- 65) 평장(平章): 당대(唐代)에는 상서성(尙書省),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의 장관을 제상으로 삼았는데, 관직이 높고 권력이 많아 항상 설치하지는 않았다. 기타 관원을 선임하여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의 이름을 더해주었는데 간략하게 동평장사(同平章事)라고도 하였다. 송대에는 이를 이어 받아 나이가 많고 명망 높은 대신만이 이를 맡았고, 지위는 재상 보다 위에 있었다.
- 66) 치재(致齋): 제관이 입재(入齋) 날부터 파재(罷齋) 다음 날까지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삼가는 것.
- 67) 유궁(帷宮): 제왕이 출행(出行)할 때 천막으로 만들었던 행궁(行宮).
- 68) 재결(齋潔): 재계(齋戒).
- 69) 의형(儀刑): 전범(典範), 모범, 본받다.

사인(舍人)이 전상(殿上)에서 직접 경필(警蹕)을 하려면,  
상조(常朝)에 황제가 계시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네.  
[舍人殿上親警蹕, 要知不是御常朝.]

황제의 어가(御駕)가 나올 때는 수놓은 비단을 댄 울자(兀子)를 전중(殿中)의 어탑(御榻) 위에 올려놓았다. 아마도 태조(太祖)가 제위(帝位)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역대 제왕들이 명당(明堂)과 남교(南郊)의 제사를 지낼 때 모두 여기에 앉았을 것이므로 3년에 한 번 비단을 한 층 더 덧대었을 뿐이었다. 법가(法駕)의 의장(儀仗)을 갖춘 노부(鹵簿)가 모두 황제의 좌우에 늘어서 있었다. 금정(禁廷)의 종루(鐘樓)와 고루(鼓樓) 위에는 태사국(太史局)의 생원관(生員官)이 있어 시간을 잰는데, 매 일각이 되면 닭소리를 내고 북을 한 번 쳤고, 그러면 초록옷을 입은 사람 한 명이 상아패(象牙牌)를 들고 어전(御殿) 아래로 가 다음과 같이 상주(上奏)하였다. “몇 시 몇 번째 각입니다.”, 혹은 “정각 몇 시입니다.”라고 하였다.

재집(宰執)과 백관(百官)들은 모두 법복(法服), 환패(環珮), 법리(法履), 두관(頭冠)을 착용하였다. 그 두관에는 각각 품계가 있었다. 재집과 친왕(親王)은 구량(九梁)에 초선농건(貂蟬籠巾)을 더했다. 시종관(侍從官)은 칠량(七梁)이었고, 나머지 관료들은 육량(六梁)에서 이량(二梁)에 이르기까지 각각 달랐다. 대간관(臺諫官)은 치각(多角)을 보탬을 뿐이었다. 소위 량(梁)이라고 하는 것은 관(冠) 앞에 있는 액량(額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위에 늘어서 있는 금동엽(金銅葉)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강포(絳袍)를 입고, 검은 색과 초록색의 방심곡령(方心曲領)과 중선(中單)에 환패(環珮)를 착용하고, 끝이 구름 모양인 신발(雲頭履鞋)을 신고, 각각 간홀(簡笏)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나머지 집사인(執事人)들은 모두 개척(介幘)에 비포(緋袍)를 착용하였는데 역시 등급이 있었다. 단지 함문(閤門)과 어사대(御史臺)의 관리들만이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더했다. 후당관(後堂官)들은 모두 품위(品位)에 의거해 복장을 갖추고 어전(御殿)에 들어왔다. 지응인(祇應人)의 복장은 법에 정해진 색을 따랐는데, 각각의 사람에게 황색의 네모난 패(黃方號)를 지급하였다. 그 외에 황색의 긴 패

[黃長號], 붉은 색의 네모난 긴 패[緋方長號] 등이 있어 각각 어전(御殿) 및 단(壇)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만약 패(號)가 없이 마구 들어가려는 자는 법규를 어긴 죄를 물어 벌하였다.

치재(致齋)를 주청(奏請)하는 날, 궁전 문 안팎 및 여정문(麗正門) 밖에서 모두 수만 명의 궁궐을 지키는 우림병(羽林兵)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말에 올라 궁궐을 에워쌌다. 이날 밤 궁전의 의위(儀衛) 외에 좌우육군(左右六軍), 의장(儀仗), 노부(鹵簿)가 각각 여정문(麗正門)과 화녕문(和寧門)에 열 지어 서 있었다. 또 녹색의 조그만 모자(綠小帽)를 쓰고, 비단을 댄 관삼(寬衫)을 입은 병사 10여 명이 한 대(隊)가 되어 각각 은으로 손잡이 부분을 두르고 검은 옷칠을 한 몽둥이(銀裹頭黑漆杖子)를 들고 있었고, 이들을 일러 ‘갈탐병사(喝探兵士)’, 즉 ‘소리쳐 탐색하는 병사’라고 하였는데 무리지어 서 있는 것이 무릇 십여 대(隊)가 되었다. 각 대에서 한 명이 “그래 안 그래?” 하고 소리쳐 물으면, 모두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누구지?”하고 물으면, 모두들 “전전 도지휘사(殿前都指揮使)의 어떤 나리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오사(五使)의 성명(姓名)을 외치고, 번갈아 가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끔 답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초경(初更: 밤 7-9시)에서 사경(四更: 새벽 1-3시) 일점(一點)이 되어서야 그쳤다. 이를 일러 ‘금경(禁更)’이라고 하였는데, 이전 사람이 이를 시로 읊은 바가 있다.

장군(將軍)과 오사(五使)가 들어오려 할 때  
시간 보고하는 것을 멈추고 “누구십니까?” 하고 묻네.

성명을 확인 후,

“늦으면 아니 되웁니다”라고 함께 소리친다네.

[將軍五使欲來時，停著更籌問是誰？審得姓名端的了，齊聲喝道不容遲.]

또 경장(警場)을 여정문(麗正門) 밖에 설치하였는데, 이를 일러 ‘무엄병사(武嚴兵士)’라고 하였다. 화고(畫鼓)와 화각(畫角) 200면이 있었는데, 그 각이

라는 악기 위에는 모두 작은 기각(旗脚)처럼 생긴 채색 비단을 달았다. 병사들은 모두 조그만 모자(小帽)를 썼고, 황색 수를 놓은 말액(抹額)을 둘러었으며, 황색 수를 놓은 관삼(寬衫)에 푸른색의 폭이 좁은 친삼(襯衫)을 착용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인 신시(申時: 오후 3-5시)와 삼경(三更: 밤 11-1시)에 각각 엄고(嚴鼓) 등을 사용해 통행금지를 알리는 음악을 연주하였다. 매 연주 때 마다 우선 각을 두 번 울렸고, 각 연주가 끝나면 군교(軍校) 한 명이 길고 부드러운 등나무 가지(長軟藤條)를 잡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황색 불진(佛塵)을 묶어 놓고 북 치는 것을 지휘했다. 북을 치는 사람은 그 불진을 보면서 그 불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북소리를 크게, 혹은 작게 울렸다. 태묘(太廟)와 교단(郊壇) 청성행궁(靑城行宮)에 머물 때는 모두 야간 통행을 통제하는 엄경(嚴更)으로 경장(警場)을 벌였다.

### 駕出宿齋殿<sup>70)</sup>

明禮行禮前三日, 平章, 宰執率百官恭請主上宿大慶殿致齋寄班<sup>71)</sup>, “舍人殿上親警蹕, 要知不是御常朝.” 上御駕出, 綉錦包兀子安於殿中御榻上. 盖太祖受位之初, 累帝明禮郊祀俱坐之, 三年一次增錦包一層耳. 法駕<sup>72)</sup>儀仗<sup>73)</sup>, 鹵簿<sup>74)</sup>, 俱列龍

70) 이 조는 《동경몽화록》 권10 <거가숙대경전(車駕宿大慶殿)>의 내용을 부연한 것이다.  
 71) 기반(寄班): 권9 <합직(閤職)> 조에 의하면 기반은 관리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관리로 해석할 경우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에 황제는 치재를 하고, 백관 등은 여러 '반(班)'에 '의탁하다(寄)'라고 우선 해석을 하였다.  
 72) 법가(法駕): 황제가 타는 수레의 일종. 천자의 행차에는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 세 종류 수레가 있었다.  
 73) 의장(儀仗): 황제의 행차에 쓰이는 무기, 깃발, 산(傘) 등의 의장용품(儀仗用品).  
 74) 노부(鹵簿): 고대 제왕의 행차 시 수행하던 의장대. 송(宋) 엽몽득(葉夢得)의 《石林燕語》 권4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당나라 사람들은 큰 방패(鹵)를 ‘노(櫓)’라고 하였는데 이는 방패의 다른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호위병들이 방패를 들고 밖에서 선도 역할을 하면서 그 앞과 뒤를 막았는데 이를 모두 장부(簿籍)에 적었기에 ‘노부(鹵簿)’라 한 것이다. [唐人謂鹵, 櫓也, 甲楯之別名. 凡兵衛以甲楯居外爲前導, 捍蔽其先後, 皆著之簿籍, 故曰‘鹵簿’.]”

擘<sup>75)</sup>之左右. 禁廷鐘鼓樓, 上有太史局<sup>76)</sup>生員官, 測驗刻漏, 每刻作雞鳴, 擊鼓一下, 則服綠者一人, 執牙牌至殿下奏曰: “某時幾刻”, 或曰“某時正也”. 宰執百僚, 皆服法服, 環珮, 法履, 頭冠. 其頭冠各有品從, 宰執親王九梁, 加貂蟬籠巾<sup>77)</sup>, 侍從官七梁, 餘官六梁至二梁有差, 臺諫官<sup>78)</sup>增多角<sup>79)</sup>耳. 所謂梁者, 則冠前額梁上排金銅葉是也. 俱服絳袍, 皂綠方心曲領<sup>80)</sup>, 中單<sup>81)</sup>, 環珮<sup>82)</sup>. 雲頭<sup>83)</sup>履鞋. 隨執簡笏. 餘執事人皆介幘<sup>84)</sup>緋袍, 亦有等差. 惟閣門,<sup>85)</sup> 御史臺諸吏, 加方心曲領. 後

75) 용지(龍擘): 단지(丹墀)와 같은 의미로 황제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76) 태사국(太史局):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기구. 당(唐) 초에 태사감(太史監)을 태사국으로 변경하였고, 당 숙종(肅宗) 건원(乾元) 원년(759)에 사천대(司天臺)로 이름을 바꾸었다. 송대에도 계속하여 설치하였는데 신종(神宗) 때 관제를 개편하여 다시 태사국이라 불렀다.

77) 초선농건(貂蟬籠巾): 초선관(貂蟬冠). 담비 꼬리에 매미를 장식으로 덧붙인 관면(冠冕). 《송사(宋史)·여복지(輿服志)》 4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 “초선관은 일명 농건(籠巾)이라고도 한다. 등나무를 엮어 만든 뒤 여기에 칠을 하였다. 정방형으로 생긴 것이 평건책(平巾幘)과 같았다. 은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앞에는 은으로 만든 꽃이 있었고, 그 위에 대모(玳瑁)로 만든 매미를 붙여놓았다. 좌우에 세 마리의 작은 매미가 옥비(玉鼻)를 물고 있었다. 왼쪽에는 담비 꼬리를 꽂았다[貂蟬冠一名籠巾, 織藤漆之, 形正方, 如平巾幘. 飾以銀, 前有銀花, 上綴玳瑁蟬, 左右爲三小蟬, 銜玉鼻, 左挿貂尾].”

78) 대간관(臺諫官): 어사(御使)와 간관(諫官)을 합쳐 부르는 호칭. 대(臺)는 어사대(御史臺), 간(諫)은 간원(諫院)을 가리킨다.

79) 치각(多角): 《동경몽화록》에는 치각(鹿角)으로 되어 있다. 보통 해치관(獬豸冠)으로 부르는데, 본래 법관(法官), 어사대부(御史大夫), 중승(中丞) 등이 썼다. 치(鹿)는 법(法), 해치(獬豸)라고도 한다. 《이물지(異物志)》에 의하면 전설상의 외뿔 동물로 악인을 보면 뿔로 받는다고 한다. 《한서(漢書)·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의 주(注)에 의하면 천자가 형벌을 공정하게 행하면 이 동물이 궁정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대(漢代)의 어사(御史)가 해치관을 쓰는 것은 신을 대신해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첩언하자면 ‘법(法)’의 고자(古字)를 ‘법(灋)’으로 쓴 것 역시 이 동물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치각(多角)은 송대 어사대관(御史臺官)과 간관(諫官)이 쓰던 관을 의미한다.

80) 방심곡령(方心曲領): 신하들의 복장에 부착하는 의례용 장식의 일종.

81) 중선(中單): 중선(中禪)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에 받쳐 입던 예복 중의 하나. 한삼(汗衫)을 가리키기도 한다.

82) 환패(環珮): 환패(環佩)라고도 쓴다. 옛사람들이 차고 다니던 패옥(佩玉).

83) 운두(雲頭): 구름 모양의 도안.

84) 개책(介幘): 책(幘)은 두건(頭巾)의 일종으로 문관(文官)이 착용하던 귀를 세운 책을 개책(介幘)이라 하여 무관(武官)이 쓰던 평상책(平上幘)과 구별하였다.

85) 합문(閣門): 송대 관원의 조회 참석, 연회, 예식 등의 일을 맡았던 기구. 권9 <합직(閣職)>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 “합문은 화녕문 밖에 있다. 조회 참석, 조하, 상전, 도반, 상관 등의 의례를 관장하였다. 지합, 부서, 선찬 및 합문지후, 기반 등의 관리가 있었다[閣門, 在和寧門外, 掌朝參, 朝賀, 上殿, 到班, 上官等儀范. 有知閣, 簿書, 宣贊及閣門祇候, 寄班等官].”

堂官俱依品位服入殿. 祇應人<sup>86</sup>)服色, 依法定色服, 各給黃方號, 餘黃長號, 緋方長號, 各有入殿宮壇<sup>87</sup>)門去處, 如無號妄入者, 准違制論也. 奏請致齋日, 殿門內外及麗正門外, 皆禁衛羽林兵, 俱全裝鐵騎, 數萬圍繞大內. 是夜殿前儀衛之外, 左右六軍, 儀仗鹵簿, 分列於麗正, 和寧. 更有裹綠小帽·服錦絡縫寬衫兵士, 十餘人作一隊, 各執銀裹頭黑漆杖子, 謂之‘喝探兵士’. 聚首而立, 凡十數隊. 各隊一名, 喝曰“是與不是?” 衆聲答曰: “是!” 又曰: “是甚人?” 衆聲應曰: “殿前都指揮使某人!” 及喝五使姓名. 更互喝叫不停聲. 或作雞鳴, 是衆人一同喝道. 自初更至四更一點方止, 此謂之‘禁更’. 前人詩詠之曰: “將軍五使欲來時, 停著更籌<sup>88</sup>)問是誰? 審得姓名端的了, 齊聲喝道不容遲.” 又置警場<sup>89</sup>)於麗正門外, 名爲‘武嚴兵士’, 以畫鼓畫角二百, 其角皆以綵帛如小旗脚結其上, 兵士皆小帽, 黃繡抹額, 黃繡寬衫, 青窄寬衫, 日晡及三更時, 各奏嚴也. 每奏先鳴角二聲罷, 一軍校執一長軟藤條, 上繫朱拂子<sup>90</sup>)搥鼓, 時衆鼓手觀其拂子, 隨其高低, 以拂子應其鼓聲高下. 宿太廟, 宿郊壇青城行宮, 俱用嚴更<sup>91</sup>)警場也.

## 5. 오로의식(五輅儀式)

중국명당(明堂)의 제사에서는 옥로(玉輅)만을 사용하였다. 남교(南郊)의 제사(祭祀)에서는 오로(五輅)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태묘(太廟) 옆의 노옥(輅屋)

- 
- 86) 지응인(祇應人): 지후인(祇候人)이라고도 한다. 이전 관청의 하급 관리나 부유한 집안의 하인을 지칭한다.
- 87) 단(壇): 높은 대[高台]. 고대 천지, 제왕,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조회, 맹세 등을 행하던 장소로 보통 흙이나 돌로 쌓은 높은 대.
- 88) 경주(更籌): 고대(古代) 밤에 시간을 재고 보고하던 용도로 쓰인 대나무 조각.
- 89) 경장(警場): 이전에 제왕이 제사 같은 대례(大禮)를 올리기 전 날, 엄고(嚴鼓)를 울리고, 시위병(侍衛兵)들이 야간 순찰을 돌며, 일반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 시키는 것.
- 90) 불자(拂子): 불진(拂塵). 승려나 도사들이 번뇌 따위를 물리치는 표지로 쓰던 총채의 일종.
- 91) 엄경(嚴更): 야간 통행을 통제하는 경고(更鼓).

아래에 세워두었다. 옥로(玉輅)는 《주례(周禮)·춘관(春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건거(巾車)는 왕의 옥로를 관장(管掌)하였다. 말 이마에 대는 가죽 장식인 양(錫)과 말의 복대(腹帶)인 번(繁)과 말 가슴을 묶는 가죽 끈인 영(纓)은 십이취(十二就)였고, 태상(太常) 십이유(十二旒)를 세워 이로써 제사를 지낸다.” 강성(康成)은 여기에 주를 달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옥로는 옥으로 그 끝을 장식한 것이다.” 현재의 옥로는 그 끝에 81개의 엽(葉)이 삼중으로 되어 있고 모두 금으로 상감이 되어 있는 사이에 진짜 옥으로 만든 용이 있다. 그리고 커다란 연잎이 모여 있고, 네 기둥과 난간에 옥으로 상감을 한 꽃과 용과 봉(鳳)이 조각되어 있다. 산하(山河)와 사직(社稷)을 비추는 커다란 거울이 매달려 있었고, 또 말 가슴을 묶는 가죽 끈인 영(纓), 기(旂), 패(珮)가 걸려있었다. 어좌(御座)의 뒤는 진짜 비단 수(錦繡)로 둘러싸고, 그 뒤에 푸른 수(靑繡)를 놓은 산하(山河)와 용봉(龍鳳) 기(旗) 두 면이 있었다. 이를 읊은 시 한 수가 있다.

옥으로 구름(雲采)을 조각해 옥상자[瑤箱]에 붙인다네,  
구슬 늘어뜨린 휘장, 조각한 박달나무, 그리고 칠보(七寶)로 조각한 침대.  
처음으로 태상(太常)을 세워 대패(大珮)를 울리네.  
옥룡(玉龍)은 엽(葉)에서 반짝거리며 상서로운 빛을 발한다네.  
[鏤瓊雲采貼瑤箱, 珠網雕檀七寶床, 首建太常鳴大珮, 玉龍耀葉發祥光.]

그 외에 금로(金輅), 상로(象輅), 목로(木輅), 혁로(革輅) 등 네 종류의 노는 모두 도금을 하여 광채가 나는 엽(葉)을 모아 놓았다. 《주례(周禮)·건거(巾車)》편(篇)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로(金輅)의 경우 금장식을 한 말 재갈[鈎], 말의 복대(腹帶)인 번(繁)과 말 가슴을 묶는 가죽 끈인 영(纓)은 구취(九就)였다.” 강성(康成)은 다음과 같이 주를 달고 있다. “금로(金輅)는 금으로써 노(輅)를 장식하였다.” 그 만든 모양이 다음과 같았다.

봉 다섯 마리와 승천하는 용 사이에 불타는 구슬이 있고,  
누런 옷에 누런 모자[弁]를 쓰고 누런 수레를 몬다네.

바퀴를 장식한 금로(金輅)에 기(旂)와 상(裳)이 꽃혀 있고,  
 방울은 교룡(蛟)의 머리에서 울러 온 거리(九衢)를 진동시키네.  
 [五鳳升龍間火珠, 黃衣黃弁駕黃車, 畫輪金輅旂裳裹, 鈴響蛟頭震九衢.]

“상로(象輅)는 붉은 색의 번영(繁纓)이 칠취(七就)였다.” 강성(康成)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로(象輅)는 상아로 노를 장식하였다.” 그 만든 모양이 다음과 같았다.

동엽(銅葉)에 황금색 칠, 찬란하게 빛이 나고,  
 아기(牙旗)를 세워 놓은 유식(遺軾), 앉은 곳은 용상(龍床)이라네.  
 적호(赤號)는 육가(六駕), 번영(繁纓)은 칠취(七就),  
 기(旂)에는 수놓은 붉은 깃, 새와 새매[隼]가 빙빙 돌며 나네.  
 [銅葉金塗粲有光, 貼牙遺軾坐龍床, 赤號六就駕繁纓七, 旂繡紅羅鳥隼翔.]

“혁로(革輅)는 용륜(龍勒), 조영(條纓)이 오취(五就)였다.” 강성(康成)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혁로(革輅)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어 만들었는데 다른 장식 없이 옷칠만을 하였다.” 그 만든 모양이 다음과 같았다.

붉고 흰 비동(飛銅) 여섯 수레가 내달리고,  
 계속하여 필러이는 용호(龍虎)가 그려진 열은 황색(黃色) 기(旂) [‘용호(龍虎)’는 웅당(熊虎)라고 하여야 한다].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옷칠을 하여 만들었고, 조영(條纓)은 오취(五就).  
 용번(戎弁)과 관재(寬裁)가 봉의(鳳衣)와 짝을 이루네.  
 [赤白飛銅六駕馳, 聯翮龍虎淺黃旂, 革鞞漆製條纓五, 戎弁寬裁對鳳衣.]

“목로(木輅)는 열은 흑색을 띤 말의 배를 묶는 띠인 전번(前繫)과 흰색의 말 가슴에 걸어 안장을 묶는 곡영(鵠纓)을 갖추었고, 대휘(大麾)를 세웠다.” 강성은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로는 가죽으로 뒤집어 씌우지 않았고, 가죽(革)으로써 칠을 하였다. ‘전번(前繫)’의 ‘전(前)’은 ‘qián’으로 읽지 않고, ‘치전(緇翦zhiǎn)’의 ‘전(翦jiǎn)’으로 발음하였는데, 이는 열은 흑색이란 의미

이다.” 그 만든 모양이 다음과 같았다.

봉새가 영패(鈴珮)를 물고 있으니 향교(響交)가 더해지고,  
 어좌(御座)의 화려한 침구(華裯)에는 온갖 꽃들이 짜여있네.  
 열여섯 마리의 금룡(金龍) 함께 바퀴(轂)를 끼고 있고,  
 검은 비단으로 만든 휘(麾)에는 거북과 뱀이 수놓아져 있네.  
 [鳳銜鈴珮響交加, 御座華裯織百花, 十六金龍齊夾轂, 皂羅麾上繡龜蛇.]

## 五輅<sup>92)</sup>儀式

明禋止用玉輅, 郊祀用五輅, 俱頓於太廟側輅屋下. 玉輅, 按《周禮·春官》:  
 “巾車<sup>93)</sup>. 掌王之玉輅, 錫<sup>94)</sup>繁纓<sup>95)</sup>十有再就<sup>96)</sup>, 建太常<sup>97)</sup>十二旂<sup>98)</sup>以祀.” 康成  
 注曰: “玉輅, 以玉飾諸末.” 今玉輅頂耀葉三層, 凡八十一葉, 皆鏤金間眞玉龍, 大蓮  
 葉攢簇, 四柱欄檻, 鏤玉盤花龍鳳, 懸掛照山河社稷大鏡, 及懸纓旂珮. 御座後眞錦  
 繡圍之, 後出青繡山河龍鳳旗二面. 有詩詠曰: “鏤瓊雲朵<sup>99)</sup>貼瑤箱, 珠網<sup>100)</sup>雕檀

92) 오로(五輅): 오로란 《주례(周禮)》에 보이는 천자의 수레로, 옥로(玉輅), 금로(金輅), 상로(象輅), 혁로(革輅), 목로(木露)의 다섯 종류 수레를 말한다.

93) 건거(巾車): 고대의 관명(官名). 수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거관(車官)의 우두머리이다.

94) 양(錫): 당노. 말 이마에 대는 가죽 장식. 그 위에 금속을 대었으며, 반월형으로 말이 움직일 때 마다 흔들려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

95) 번영(繁纓): 말을 매는 끈 장식. ‘번(繁)’은 ‘번(樊)’과도 통하는데 말의 복대(腹帶)를 가리키고, ‘영(纓)’은 말 가슴을 매는 가죽 끈이다.

96) 취(就): 고대 복식에 있어 오색실을 한 번 두르는 것을 일러 1취(就)라고 하였는데, 1부터 시작하여 등급의 고하에 따라 그 구별이 있었다. 《주례(周禮)·추관(秋官)·대행인(大行人)》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상공(上公)의 예도(禮度)는 9촌 짜리 환규(桓圭)를 들고, 9촌 짜리 소자(纁藉)를 갖추고, 9장(章)의 면복(冕服)을 입고, 상기(常旗) 9유(旂)를 세우며, 번영(樊纓)은 9취를 갖춘다[上公之禮, 執桓圭九寸, 纁藉九寸, 冕服九章, 建常九旂, 樊纓九就.]”

97) 태상(太常): 고대 깃발의 일종. 《송사(宋史)·여복지(輿服志)》의 <옥로(玉輅)> 조에는 “왼쪽에는 태상(太常)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용류(龍旂)를 세워 노(輅)의 뒤에 꽂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98) 유(旂): ‘류(旒)’라고도 쓴다. 면류관의 앞과 뒤에 늘어뜨린 옥을 꿰어 놓은 줄.

99) 운타(雲朵): 구름, 조각구름.

100) 주망(珠網): 구슬을 꿰어 만든 휘장.

七寶床. 首建太常鳴大珮, 玉龍耀葉發祥光.” 餘金, 象, 木, 革四輅, 俱鍍金耀葉簇之. 俱按《周禮》巾車職篇曰: “金輅, 鉤繁纓九就.” 康成注曰: “金輅, 以金飾輅.” 製以“五鳳升龍間火珠, 黃衣黃弁<sup>101)</sup> 駕黃車, 畫輪金輅旂裳<sup>102)</sup> 裹, 鈴響螭頭<sup>103)</sup> 震九衢<sup>104)</sup>.” “象輅, 朱繁纓七就.” 康成注曰: “象輅, 以象飾輅.” 製以“銅葉金塗絜有光, 貼牙<sup>105)</sup> 遺軾<sup>106)</sup> 坐龍床, 赤號六駕繁纓七, 旂繡紅羅鳥隼翺.” “革輅<sup>107)</sup>, 龍勒條纓五就.” 康成注曰: “革輅, 輓之以革, 而漆之無他飾.” 製以“赤白飛銅六駕馳, 聯翺<sup>108)</sup> 龍虎淺黃旂〔龍虎‘當作’熊虎〕, 革鞅<sup>109)</sup> 漆製條纓五, 戎弁寬裁對風衣.” “木輅, 前繁鵠纓建大麾.” 康成注曰: “木輅, 不鞅, 以革漆之, 前讀爲緇翦之翦<sup>110)</sup>. 淺黑.” 製以“鳳銜鈴珮響交加, 御座華裯織百花, 十六金龍齊夾轂, 皂羅塵上繡龜蛇.”

- 
- 101) 변(弁): 고대 중국 귀족이 쓰던 모자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예복을 입을 때 착용하였다. 적흑색(赤黑色)의 포(布)로 만든 것을 작변(爵弁)이라하여 문관(文官)이 썼고, 백색(白色)의 늑피(鹿皮)로 만든 것은 피변(皮弁)이라 하여 무관(武官)이 썼다.
- 102) 기상(旂裳): ‘기(旂)’는 장대 끝에 용을 그려 넣고 방울을 달아 놓은 깃발이고, ‘상(裳)’은 ‘상(常)’으로 일월(日月)을 그려 놓은 깃발로 천자의 행차에 쓰였다.
- 103) 이두(螭頭): 고대 예기(禮器), 비석, 기둥, 계단 및 인장(印章)의 윗부분에 조각되어 있던 교룡의 머리 모양. ‘이(螭)’는 전설 중의 뿔 없는 용.
- 104) 구구(九衢): 종횡(縱橫)으로 교차하는 큰 도로. 변화한 거리.
- 105) 아(牙): 기의 한 종류인 아기(牙旗). 아기는 깃대 위에 상아 장식에 있는 대기(大旗)로 주로 주장(主將)이 세웠고, 또 의장용으로도 쓰였다. 송(宋) 주밀(周密)의 《제동야어(齊東野語)·출사기절(出師旗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진인수경경(真人水鏡經)》에 의하면 ‘무릇 출군(出軍)을 할 때는 아(牙)를 세웠는데 반드시 단단히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만약 부러지면 장차 군사들에게 이롭지 아니하였다.’ 무릇 여기서 아는 바로 기(旗)를 가리킨다[按《真人水鏡經》云: ‘凡出軍立牙, 必令堅完. 若折, 則將軍不利.’ 蓋牙, 卽旗也].”
- 106) 유식(遺軾): ‘遺’의 원래 글자는 ‘木+遺’의 형태로 그 의미는 미상이다. ‘식(軾)’은 수레 앞턱의 가로 막대이다.
- 107) 혁로(革輅): 고대 제왕이 타던 수레의 일종. 가죽으로 덮고 다른 장식이 없었다. 작전, 혹은 제후나 국도를 순시할 때 사용하던 수레이다.
- 108) 연편(聯翩): 연달아 끊임없는 모양.
- 109) 혁만(革鞅): 짐승의 가죽을 덮어 장식한 수레. 고대 사대부 이상의 수레는 모두 가죽으로 장식하였다.
- 110) 전독위치전지전(前讀爲緇翦之翦): ‘전(前)’의 원래 중국어 발음은 ‘qián’이나 여기서는 ‘qián’으로 읽지 않고 ‘열은 검정색’이란 뜻을 갖는 글자인 ‘전(翦)’의 중국어 발음 ‘jiǎn’으로 읽어 ‘열은 검정색’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 6. 관리를 파견해 도신(道神)에게 제사지내고 도로를 청소하다

인사(禮祀)와 교사(郊祀)를 치를 때 모두 사관(祠官)을 파견해 도신(道神)에게 올리는 발제(輓祭)를 지냈다. 《주례(周禮)·대어(大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옥로(玉輅)를 몰고, 도신(道神) 발(輓)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장관하다.” 주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산행(山行)을 일러 발(輓)이라 한다. 제사를 행하는 자는 봉토(封土)를 하여 산상(山象)을 만들고, 향초의 일종을 잘라놓은 풀(菩芻), 멧대추나무(棘), 그리고 측백나무(柏)로 신주(神主)를 만들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수레로 그것을 밟고 지나갔는데, 이는 험난함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청도(淸道)의 신(神)은 삼중(三重)이었는데, 왕이 출입하면 여덟 사람이 도로를 양옆에서 끼고 걸어갔고, 복장은 무변(武弁)에 비포(緋袍)와 수삼(繡衫)을 입었으며, 검은 칠을 한 지팡이(黑漆杖)를 짚고 있었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제사는 “황제의 시위무사(侍衛武士)인 척랑씨(條狼氏)들이 채찍을 들고 앞에서 길을 정리하였다”는 의미이다. 내가 생각해 본즉, 한밤중에 지나가다가 도로 양측에 있는 구경꾼들에게 연달아 소리를 쳐서 모두 등촉(燈燭)을 끄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 差官輓祭<sup>111)</sup>及淸道

禮祀<sup>112)</sup>與郊祀<sup>113)</sup>, 俱差祠官輓祭. 按《周禮大馭》: “掌玉輅, 以祀犯輓<sup>114)</sup>.”

111) 발제(輓祭): 도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발(輓)’은 고대 출행(出行)할 때 도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112) 인사(禮祀): 고대 하늘에 지내던 예식의 일종. 먼저 장작을 때 연기가 나게 한 후 다시 희생(犧牲)이나 옥백류(玉帛類)를 장작 위에 얹어 태웠다.

注曰: “行山曰輶. 犯之者封土爲山象, 以菩芻棘柏<sup>115)</sup>爲神主. 旣祭, 以車轆之而去, 喻無險難也.” 清道之神, 乃三重. 王出入, 則八人夾道行, 服武弁緋袍繡衫, 執黑漆杖. 按, 《周禮》, 祀, “條狼氏,<sup>116)</sup> 掌執鞭以趨避<sup>117)</sup>”之義也. 愚詳之, 卽半夜而過, 連聲告報兩街看位, 俱令滅燈燭者是也.

## 7. 천자가 경령궁(景靈宮)에 행차할 때의 의장(儀仗)

천자는 대경전(大慶殿)에 묵으면서 치재(致齋)를 하였는데, 다음날 오경(五更: 새벽 3-5시)에 섭대종백(攝大宗伯)이 대경전 앞으로 와서 중엄(中嚴), 즉 중정(中庭)의 경계와 외관(外辦), 즉 궁궐의 경비 태세가 완료되었음을 상주하였다. 호위철기(護衛鐵騎)가 사경(새벽 1-3시)부터 계속해서 순서대로 여러 관청 소속 관리들과 내시들을 인솔하여 궁궐 문 앞으로 가 줄을 서게 하였다. 백관(百官)들은 각자 법복(法服)과 관패(冠珮)를 착용하고 입조(入朝)하여 황제를 알현하는 기거(起居)를 마치고 각자 궁전의 문을 나서 말을 끌고는 학사원(學士院)에서 대기 하였다. 쾌행(快行)과 위사(衛士)들은 각각 연(蓮) 모양의 횃불(炬)을 들고 난간 아래에서 천자가 소요련(逍遙輦)에 오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천자가 경령궁(景靈宮)에 이르러 제사의 보고를 드리는 것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에 주기(朱旗) 수십 면(面), 나고(鑼鼓) 악대(樂隊), 코끼리 두 마리가 뒤를 이었다. 코끼리들은 각각 궁(宮)에서 하사한 비단(錦)을 이불 삼아 걸치고, 금장(金裝)한 연화보좌(蓮花寶座)를 그 등위에 얹어 놓았으며 금 고삐

113) 교사(郊祀): 교외에서 천지(天地)에 지내던 제사. 남교(南郊)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북교(北郊)에서는 땅에 제사를 지냈다. 교사는 삼 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었다.

114) 범발(犯軼): 출행(出行) 전에 도신(道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115) 보추극백(菩芻棘柏): ‘보추(菩芻)’는 향초의 일종을 잘라 놓은 풀. ‘극백(棘柏)’은 멧대추나무와 측백나무.

116) 조랑씨(條狼氏): 제왕이 출행할 때 따르던 위사(衛士).

117) 추피(趨避): 추벽(趨辟). 앞에서 행인들을 쫓아내 수레를 피하도록 하는 것.

를 그 머리와 몸에 씌어 놓았다. 보좌(寶座)의 앞에는 한 금상(錦裳)을 입은 사람이 은곽(銀纓)을 들고 코끼리 목에 걸터앉아 코끼리를 몰았다. 《진서(晉書)·여복지(輿服志)》 및 《한로부(漢鹵簿)》에 의하면 코끼리는 북송 개보(開寶) 연간 초 광남(廣南)에서 공물로 들어온 것인데, 대가(大駕)를 끌도록 오월왕(吳越王)이 광남(廣南)과 교지(交趾) 지역의 코끼리를 조정에 헌납한 것이라고 한다. 남쪽으로 내려온 후 남탕(南筵)으로부터 비단이불(錦衾)을 지급받아 코끼리를 덮어주었다. 이종(理宗) 시기 안남(安南)이 코끼리를 공물로 보내 대가(大駕)의 선도(先導) 의장(儀仗)으로 쓰도록 하였다. 노부(鹵簿)에 깃발(幡幟)이 있어 '고지(告止), 전교(傳教), 신번(信幡)'으로 나뉘었는데 각각 붉은 비단(緋帛)에 다양한 채색을 넣었다. '고지(告止)'라는 것은 이것으로써 행동을 절제(節制)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전교(傳教)'라는 것은 가르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이 깃발을 세워 전한다는 의미이며, '신번(信幡)'이라는 것은 관명(官名)과 번호 등을 써서 부신(符信)을 삼는다는 의미이다. 대저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교신(教信), 번전(幡傳), 고지(告止)의 깃발,

바람을 타고 주패(朱珮)와 금의(錦衣) 사이에서 펄럭이네.

한 번 멈췄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마치 모두 부절(符節)과 같아

환구(圜丘)에서 바로 구관(九關)에까지 이른다네.

[教信幡傳告止幡，凌風朱珮錦衣間，一停一舉皆如節，直自圜丘至九關.]

노부(鹵簿)의 의장(儀仗)으로는 높이 솟은 기(旒)와 커다란 선(大扇), 화극(畫戟)과 장모(長矛)가 있었다. 오색(五色)의 갑옷과 투구를 입고 말에 올라탄 자, 혹은 조그만 모자(小帽)에 비단수를 놓은 말액(抹額)을 두른 자, 혹은 검은 칠을 한 원정복두(圓頂幘頭)를 쓴 자, 혹은 가죽으로 만든 투구의 일종인 두무(兜鍪)를 쓴 자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농기구인 호두(屨斗)와 비슷하게 생긴 옷칠을 한 가죽 농건(籠巾)을 쓰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붉고 누런 선명한 색채의 그림이 수놓아진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완

전히 푸르고, 완전히 검은 옷을 입었는데 신발에서 바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푸르거나 검은 색으로 통일된 색깔의 옷을 입었다. 어떤 이들은 교각복두(交脚幘頭)를 쓰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비단으로 뱀처럼 끈을 꼬아 그 몸에 두른 자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명이 노래를 부르며 커다란 기를 들고 지나가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커다란 도끼(大斧)를 들고 있었으며, 검을 허리에 찬 사람들, 날카로운 방패(銳牌)를 들고 있는 자들, 등봉(鎧棒)을 들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끝에 표범 꼬리를 달아 놓은 장대를 들고 있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단저(短杵)를 들고 있었다. 그 극(戟)에는 모두 오색의 매듭(結帶)과 구리방울(銅鐸)이 달려 있었다. 또 의장에는 박삭(穉稍)[박(穉)은 발음이 ‘보각절(步角切)’이고, 삭(稍)은 발음이 ‘소탁절(小卓切)’이다]118)이라는 것도 있었다. 《개원예지(開元禮志)》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금오장군(金吾將軍)이 박삭(穉稍)을 쥐고 대오(隊伍)를 순찰하며 그 비리를 제거했다. 그 형태가 검(劍)과 같으면서 날이 셋이 있었고,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으로 포대를 삼아 이를 담았다. 이런 제도는 진한(秦漢)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아(爾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박삭(穉稍), 소가 뿔로 저항하면 어떤 짐승도 당해낼 수 없다.’ 때문에 소머리로 만든 것을 최상으로 쳤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호검(虎劍)을 주머니에 넣으니 검(劍)의 모습과 비슷하고,  
 소머리를 조각해 놓으니 백수(百獸)가 놀라네.  
 노부(鹵簿)의 앞과 뒤에 서니 위덕(威德)이 빛나고,  
 비리를 규찰(糾察)하니 누가 감히 대항하리요?  
 [虎劍囊封似劍形。刻成牛首獸皆驚。後先鹵簿彰威德。糾察非違孰敢嬰.]

어떤 이들은 붉은색 등나무 넝쿨(朱藤)로 네모 낱고 둥글게 엮어 망(網)을

118) [박(穉)은 발음이 ‘보각절(步角切)’이고, 삭(稍)은 발음이 ‘소탁절(小卓切)’이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로마자 발음 기호가 없었기에 반절(反切)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어려운 글자의 발음을 알렸다. 반절이란 앞의 글자에서는 자음을, 뒤의 글자에서는 모음과 받침을 따서 하는 발음으로 ‘박(穉)’의 경우 ‘보각절(步角切)’, 즉, ‘보서 자음 ‘브’를 취하고, ‘각’에서 모음과 받침 ‘각’을 취해 발음이 ‘박’이 되는 것이다.

만든 필한(畢單)[필(畢)은 발음이 필밀절(畢密切)이고, 한(單)은 발음이 呼案切]이다]이라는 것을 들고 있었다. 서타(徐妥)의 《석의(釋疑)》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천자의 황휘(黃麾) 안에 왼쪽에는 필(畢), 오른쪽에는 한(單)을 두었고, 붉은 색 등나무 줄기로 망을 두 개 짰다. 그리고 교룡의 머리에는 붉은 실을 늘어뜨렸다. 필(畢)은 사각, 한(單)은 원형으로 필수(畢宿)와 묘수(昴宿) 두 별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문(天文)은 필수(畢宿)와 묘수(昴宿) 사이에 있어, 이를 일러 천가(天街)라고 하였다. 이에 필한(畢單)으로 선도(先導)를 삼은 것이다.”

물기(物旗)를 만들에 있어 황룡(黃龍)이 하도(河圖)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군왕만세(君王萬歲), 천문(天文)과 비단수[綵繡], 일월(日月)이 동시에 올라 온 것, 다섯 개의 별이 실에 꿰 구슬처럼 있는 것(五星連珠), 해와 달의 상서로운 빛무리(重輪)와 상서로운 오색구름(慶雲), 오악(五嶽)과 사독(四瀆), 사방(四方)의 상물(祥物), 상서로운 빛(祥光)과 상서로운 기운(瑞氣), 쌍련(雙蓮)과 수지(秀芝), 가화(嘉禾)와 서과(瑞瓜), 금우(金牛)와 적표(赤豹), 난봉(鸞鳳)과 용(龍)과 기린(麒麟), 백랑(白狼)과 앵무(鸚鵡), 번금(番錦)으로 만든 곤계(鷄)를, 서상(犀祥)을 짜 넣은 치(幟), 군왕(君王)을 따르는 학(鶴)같은 것들이 있었다. 방산(方纛), 곡개(曲蓋), 붉고 동그란 선(朱圓扇)을 들었다. 고찰에 따르면 비단을 펼쳐 비를 피하는 것을 일러 ‘산(繖)’이라 하였는데, 붉은 바탕에 겹이 자줏빛이었고, 모양은 정사각형에 동으로 만든 교룡의 머리(螭頭)가 있었다. 그 곡개(曲蓋)라는 것은 주무왕(周武王) 시기에 큰바람이 불어 손잡이를 부러뜨리자姜태공(姜太公)이 이것을 구부러지게 만든 것이다. 수를 놓은 둥근 모양의 붉은 선[繡團朱扇]은 고찰에 따르면 한대(漢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레에 쓰이는 것이었다. 법가(法駕)의 노부(鹵簿)와 의장대(儀仗隊)를 인솔하는 자는 다음과 같았다.

절당(節幢)과 수극(受戟), 서기(瑞氣)를 띠고,  
 빨과 새털로 장식한 활과 같은 전후로 늘어서 있네.  
 오십대(五十隊) 가운데 육인(六引)으로 나누니,

설관(設官)된 영수(領袖)는 모두 화려한 언치를 갖추었다네.  
 [節幢戈戟帶祥煙, 角麾弓刀列後先. 五十隊中分六引, 設官領袖盡華韉.]

커다란 기가 있었는데 이름을 '개천기(蓋天旗)'라고 하였고 여정문(麗正門) 밖 어로(御路)의 중심에 세워 놓았다. 또 높이가 3-4장(약 10-13m)되는 기가 있었는데 이를 일러 '차황룡기(次黃龍旗)'라고 하였다. 태묘(太廟)의 앞에도 기가 하나 서 있었는데, 교사(郊祀)를 지내게 되면 청성행궁(青城行宮)의 문 밖에 세워 놓았고, 이것도 '개천기(蓋天旗)'라고 불렀다. 또 줄이 늘어뜨려진 기좌(旗座)가 있어 백여 사람이 그것으로 기를 세웠다. 천무(天武), 금오(金吾), 친훈(親勳) 등의 반(班)들은 '봉신대(奉宸隊)'라고 불렀다.

백백하게 아홉 겹으로 보련(寶輦)을 둘러싸고,  
 자수한 옷 휘날리며 향진(香塵)을 감아올리네.  
 [密匝九重環寶輦, 繡衣飛采捲香塵.]

또 교각복두(交脚幞頭)에 검을 허리에 차고, 신발을 신은 것이 마치 사직사자(四直使者)와 같았는데, 일이백 명 있어 이를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제전직(諸殿直)과 친종관(親從官)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결대(結帶)를 하고, 붉은 비단(紅錦)이나 붉은 깃(紅羅)에 사자(獅子)가 노는 모습을 자줏빛 실로 단탑(團搭)을 만들었고, 뒤가 짧은 타갑배자(短後打甲背子)를 입었다. 어룡직(御龍直) 소속 관원들은 모두 진주(眞珠)로 엮은 단건(短巾)을 썼고, 자줏빛 바탕 위에 다양한 색깔의 작은 꽃을 수놓은 삼(衫)에 금으로 만든 속대(束帶)를 찻으며, 허리에는 꽃모양의 간대(看帶)를 걸었고, 명주실로 만든 신발(絲鞋)을 신고 있었다. 천무관(天武官)들은 모두 주홍색 칠을 한 위에 금장(金裝)을 한 진립(陳笠)을 쓰고, 붉은 색에 둥그런 모양의 꽃을 새긴 배자(背子)를 입고 있었다.

우리 국조(國朝)에는 아홉 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대조회(大朝會)같은 것을 할 때 궁전 계단 앞에 놓았다. 남교(南郊)나 명당(明堂)과 같은 대사(大祀)에

는 의장(儀仗) 안으로 맞아 들었다. 부보관(符寶官) 두 명이 좌우에서 보물을 받들고 천자의 수레를 따라갔는데, 이를 일러 ‘영보여(迎寶輿)’, 즉 ‘보물 수레를 맞이하다’라고 하였다.

삼아(三衙)의 태위(太尉)와 어대관(御帶官), 환위관(環衛官)들은 모두 조그만 모자에 배자(背子)나 자주색 수를 놓은 전포(戰袍)를 입고, 말을 타고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다. 내시(內侍)들 역시 작은 모자에 자주색 수를 놓은 포(袍)를 입고 천자를 따르면서 길을 인도하였다. 천을 넘고, 만을 헤아리는 마차와 말들이 황제를 따라 경령궁(景靈宮)에 들어온 후 잠시 쉬었고, 성조전(聖祖殿)에 가서 예를 올릴 것을 주청하였다. 막걸리(醪), 차[茗], 푸성귀와 과실[蔬果], 밀기울[麩], 진한 유즙(酪)으로써 제사를 지냈다. 음악은 《건안(乾安)》, 《대안(大安)》, 《영안(靈安)》, 《흥안(興安)》, 《조안(祖安)》, 《정안(正安)》, 《충안(冲安)》, 《보안(報安)》 등의 장(章)을 연주하였고, 악무(樂舞)로는 《발상(發祥)》, 《유경(流慶)》, 《강진(降眞)》, 《관덕(觀德)》 등의 곡(曲)이 있었다. 상주(上奏)가 끝나면 천자는 태묘(太廟)로 돌아가 숙재(宿齋)를 하였다.

### 駕詣景靈宮儀仗

主上宿大慶殿致齋，次早五更，攝大宗伯<sup>119</sup>詣殿前執牙牌奏中嚴<sup>120</sup>外辦<sup>121</sup>，護衛鐵騎，自四更時接續番裏，導行諸司局分內侍人員司屬，前往宮闈排班。百官各法服冠珮，入朝起居畢，各出殿門轡馭，在學士院伺候。快行<sup>122</sup>，衛士各執蓮炬，

119) 섭대종백(攝大宗伯): 대종백(大宗伯)은 주대(周代) 육경(六卿)의 하나로 국가의 제사(祭祀), 전례(典禮)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섭(攝)’이라는 것은 이러한 직책을 겸직하여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20) 중엄(中嚴): 중정(中庭)의 경비.

121) 외관(外辦): 궁궐의 경비.

122) 쾌행(快行): 어가(御駕)를 수행하며 의복과 그릇 등을 담당하던 직책. 《송사(宋史)》 권188 《병지(兵志)》 2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쾌행, 장행은 송나라가 남쪽

在檻下伺駕登逍遙輦，從駕詣景靈宮行奏告禮。次第朱旗數十面，鑼鼓隊引，驅象二頭，各以宮錦爲袞披之，以金裝蓮花寶座安於背中，金轡籠絡其首體。寶座前，一衣錦裳人執銀鑾，跨頸驅行。按，《晉書·輿服志》及《漢鹵簿》，在前宋朝開寶初，廣南來貢，吳越王以廣南交趾<sup>123</sup>獻於朝，以備大駕。南渡以後，入貢南帑<sup>124</sup>，給錦袞覆之。理廟朝<sup>125</sup>，安南貢至，令備大駕先驅之儀仗。鹵簿有幡幟<sup>126</sup>者，謂之‘告止，傳教，信幡’，各以緋帛雜錯來采。告止者，以爲行之節，傳教者，有教令所不及，置幡以傳，信幡者，題表官號以爲符信<sup>127</sup>也。蓋謂‘教信幡傳告止幡，凌風朱珮錦衣間，一停一舉皆如節，直自圓丘<sup>128</sup>至九關<sup>129</sup>。’鹵簿儀仗，有高旂大扇，畫戟長矛，以五色介冑跨馬之士，或小帽錦繡抹額者，或頂黑漆圓頂幟頭者，或以皮爲兜鍪<sup>130</sup>者，或漆皮如犀斗<sup>131</sup>而籠巾者，或衣紅黃罽畫<sup>132</sup>錦繡服者，或衣純青純皂以至鞋襪皆純青皂者，或裹交脚幟頭，或錦爲繩如蛇繞繫身者，或數人唱引大旗行過，或執大斧勝劍銳牌持鐙棒<sup>133</sup>者，或持竿上懸豹尾者，持短竿者，於戟上綴五色結帶銅鐸者。又有儀仗內名獮[步角切]稍[小卓切]<sup>134</sup>者。按《開元禮志》，‘金吾將軍，執獮稍以察隊伍，去其非違。形如劍而三刃，以虎豹皮爲袋盛之。其制始於秦

으로 내려온 후 설치되었고, 100명이었다[快行, 長行, 中興後置, 一百人].” 그러나 왕명청(王明清)의 《휘진록(揮塵錄)》에는 휘종(徽宗)이 ‘쾌행가(快行家)’를 보내 소교(小轎)에서 소속당(蘇叔黨)을 불러 입궁하여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북송 때 이미 ‘쾌행’이란 직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23) 교지(交趾): 고대 지명으로 일반적으로 오령(五嶺) 이남 지역을 지칭한다. 오령이란 대유령(大庾嶺), 월성령(越城嶺), 기전령(騎田嶺), 맹저령(萌渚嶺), 도방령(都龐嶺)의 총칭으로 강서성(江西省), 호남성(湖南省), 광둥성(廣東省), 광서성(廣西省) 등에 걸쳐 있다.
- 124) 남탕(南帑): 정확한 것은 미상. ‘탕(帑)’은 금과 비단을 저장해 놓았던 부고(府庫).
- 125) 이종조(理廟朝): 남송(南宋)의 이종(理宗)의 재위 기간인 1225-1264년.
- 126) 번치(幡幟): 깃발. 기치(旗幟), 번직(幡織)이라고도 한다.
- 127) 부신(符信): 부절(符節), 인장(印章) 등 신물(信物)의 통칭.
- 128) 환구(圓丘): 고대 천자가 동지(冬至)에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내던 장소.
- 129) 구관(九關): 구중천문(九重天門) 혹은 구천(九天)의 관문(關門).
- 130) 두무(兜鍪): ‘두모(兜牟)’라고도 한다. 고대 병사들이 썼던 투구의 일종.
- 131) 호두(犀斗): 고대 관개용(灌溉用) 농기구의 일종.
- 132) 엄화(罽畫): 색채가 선명한 그림.
- 133) 등봉(鐙棒): 고대의 몽둥이 모양으로 생긴 무기의 일종으로 그 한쪽 끝에 말의 등자(籠子) 형태의 동제품(銅製品)을 새겨놓은 것. 후에 의장용으로 사용되었다.
- 134) 박삭(獮稍): 고대 무기의 일종.

漢. 《爾雅》云, ‘獮稍, 牛抵觸, 百獸不敢當.’ 故制牛首爲上.” 正謂“虎劍囊封似劍形, 刻成牛首獸皆驚. 後先鹵簿彰威德, 糾察非違孰敢撓.” 或持朱藤結方圓網者, 名罩(畢密切)罩(呼案切)<sup>135</sup>. 按, 徐妥《釋疑》曰, “乘輿黃麾內, 左罩右罩, 以朱藤結網二, 螭首, 紅絲拂, 蓋罩方罩圓, 取畢昴<sup>136</sup>二星象.” 又云, “天文畢昴之中, 謂之天街, 故以罩罩前導也.” 建物旗<sup>137</sup>者, 其制有黃龍負圖, 君王萬歲, 天文綵繡, 日月合璧<sup>138</sup>, 五星連珠<sup>139</sup>, 重輪<sup>140</sup>慶雲<sup>141</sup>, 五嶽<sup>142</sup>四瀆<sup>143</sup>, 四方祥物, 祥光瑞氣, 雙蓮<sup>144</sup>秀芝, 嘉禾<sup>145</sup>瑞瓜, 金牛赤豹, 鸞鳳龍麟, 白狼鸚鵡, 鷓鴣<sup>146</sup>番錦, 幟鬪犀祥, 鶴扈君王. 執方徽, 曲蓋, 朱圓扇者. 按張帛避雨謂之徽, 赤質紫表, 正方四角, 有銅螭頭. 其曲蓋者, 武王時大風折柄, 太公之用之而制曲. 繡團朱扇, 按, 漢制, 乘輿用也. 法駕鹵簿儀仗隊引者, 如“節幢<sup>147</sup> 旻戟<sup>148</sup>帶祥煙, 角斝<sup>149</sup>弓刀

135) 필한(罩罩): ‘罩’의 원래 글자는 ‘𠂔+日+干’이 위에서 아래로 놓여 있는 형태이다. 이하 동일.

136) 필묘(畢昴): 별자리 이름으로 필성(畢星)과 묘성(昴星) 두 별을 의미한다. ‘필(畢)’은 이십팔수(二十八宿)의 하나로 백호칠수(白虎七宿)의 다섯 번째 별이다. 그 분포가 마치 고대 사냥용의 필망(畢網)을 닮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별이 전쟁과 비를 주관한다고 여겼다. ‘묘(昴)’는 이십팔수의 하나로 백호칠수의 네 번째 별이다. 모두(髦頭), 혹은 모두(旄頭)라고도 불렀다. 밝은 별 7개로 구성되어 있다.

137) 물기(物旗): 구기(九旗)의 일종. 구기란 상(常), 기(旂), 전(旛), 물(物), 기(旗), 여(旟), 조(旒), 수(旒), 정(旌)의 아홉 가지 깃발로 각각 다른 휘장(徽章)을 그려 넣었으며, 각기 다른 등급과 용도를 나타내었다.

138) 합벽(合璧): 해와 달이 함께 올라오는 것의 비유. 원래 의미는 반으로 쪼개진 두 개의 벽(璧)이 합쳐져 원형을 이룬다는 것.

139) 오성연주(五星連珠): 다섯 개의 별이 구슬이 이어 놓은 듯 연이어 있다.

140) 중륜(重輪): 해와 달을 에워싸는 빛이 구름층을 통과해 반사되면서 형성된 빛 무리. 고대에는 이것을 상서로운 것의 상징으로 여겼다.

141) 경운(慶雲): 오색 구름. 고대에는 이것을 경사스럽고 상서로운 기운으로 여겼다.

142) 오악(五嶽): 중국을 대표하는 명산인 동악(東嶽) 태산(泰山), 남악(南嶽) 형산(衡山), 서악(西嶽) 화산(華山), 북악(北嶽) 항산(恒山), 중앙(中嶽) 숭산(嵩山)의 통칭(通稱).

143) 사독(四瀆): 중국을 대표하는 강들인 장강(長江), 황하(黃河), 회하(淮河), 제수(濟水)의 통칭(通稱).

144) 쌍련(雙蓮): 같은 가지에 동시에 핀 두 송이의 연꽃. 병체연(并蒂蓮)이라고도 한다. 고대에는 이것을 상서로운 것의 징조로 여겼다.

145) 가화(嘉禾): 기이하게 자란 벼. 고대에는 이것을 길상(吉祥)의 조짐으로 보았다.

146) 곤계(鷓鴣): 학(鶴)처럼 생긴 새의 일종.

147) 절당(節幢): 부절(符節)과 의장용이나 지휘용으로 쓰이는 기.

148) 수극(旻戟): ‘수(旻)’는 고대 병기의 일종으로 몽둥이류에 속한다. 대나무나 목재로 만드는데 팔각이고, 끝부분에 원통형의 금속을 붙여 놓았는데 날은 없었다. 금속제의 가시가 박힌 구(球)와 끝 부분에 모(矛)를 붙여 놓은 것도 있다 대부분 의장용으로 쓰였다. ‘극

列後先. 五十隊中分六引, 設官領袖盡華幟.”有大旗, 名‘蓋天旗’, 立於麗正門外御路中心. 又有旗高三四丈, 謂之‘次黃龍旗’, 往太廟前立, 若郊祀, 移於青城行宮門外立之, 亦名‘蓋天旗’也. 更有含索旗座, 百餘人立之, 有天武, 金吾, 親勳諸班, 號‘奉宸隊’. “密匝九重環寶輦, 繡衣飛采捲香塵.” 又有交脚幞頭, 胯劍足靴, 如四直使者<sup>150</sup>)一二百人, 不可名狀. 諸殿直親從官皆帽衣結帶紅錦, 或紅羅上紫團搭<sup>151</sup>)戲獅子, 短後打甲背子. 御龍直裹眞珠結絡花兒短巾, 衣紫上雜色小繡花衫鍍金束帶, 腰懸花看帶, 絲鞋. 天武官皆頂朱漆金裝笠兒, 衣紅上團花背子. 其國朝九寶, 如大朝會, 置於殿陛前, 郊明大祀, 迎於儀仗中. 符寶官二員, 左右奉寶以從駕, 謂之‘迎寶輿’也. 三衛太尉并御帶環衛官, 皆小帽背子, 或紫繡戰袍, 跨馬前導. 內侍亦小帽紫繡袍從駕導行. 千乘萬騎, 駕到景靈宮入次少歇, 奏請詣聖祖殿行禮, 以醪茗<sup>152</sup>)蔬果麩酪饗之, 樂奏《乾安》, 《大安》, 《靈安》, 《興安》, 《祖安》, 《正安》, 《冲安》, 《報安》之章, 樂舞《發祥》, 《流慶》, 《降眞》, 《觀德》之曲. 奏告畢, 駕回太廟宿齋.

(幟)은 고대 병기의 일종으로 과(戈)와 모(矛)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과처럼 횡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모처럼 앞으로도 찌를 수 있는 두 가지의 효용이 있어 살상력이 과와 모보다 강하였다.

149) 창(摐): 고대 의장의 일종으로 새 깃털로 만든 기번(旗幡).

150) 사직사자(四直使者): 어룡직(御龍直) · 어룡골타자직(御龍骨朵子直) · 어룡궁전직(御龍弓箭直) · 어룡노직(御龍弩直) 등 ‘사직(四直)’의 지휘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나 확실하지는 않다.

151) 단답(團搭): 아플리케로 추정된다. 아플리케란 형교 등을 잘라 천에 꿰매 붙여 특정 무늬를 만든 것을 말한다. 《동경몽화록》 권10 <가행의위(駕行儀衛)>에는 ‘단답(團答)’으로 나와 있다.

152) 명(茗): 차, 차잎.

### 〈 參考文獻 〉

- 孟元老(1956),《東京夢華錄外四種》,上海:上海古典文學出版社。
- 吳自牧 著·梅原郁 譯註(2000),《夢梁錄-南宋臨安繁昌記》1-3,東京:平凡社。
- 南宋 吳自牧·周密 撰·傅林祥 注(2001),《夢梁錄·武林舊事》,濟南:山東友誼出版社。
- 宋 吳自牧 著·符均·張社國 校註(2004),《夢梁錄》,西安:三秦出版社。
- 劉坤 等 主編(2003),《夢梁錄外四種》,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
- 鄧之誠 注(1982),《東京夢華錄注》,北京:中華書局。
- 入矢義高·梅原郁 譯註(1996),《東京夢華錄-宋代之都市と生活》,東京:平凡社。
- 伊永文 箋注(2006),《東京夢華錄箋注》,北京:中華書局。
- 姜漢椿 譯注(1998),《東京夢華錄全譯》,貴州:貴州人民出版社。
- 王明蓀 編撰(1983),《東京夢華錄》,台北:時報出版公司。
- 黃驗 注(2004),《圖解東京夢華錄》,台北:實學社。
- 孟元老 著, 김민호 譯(2010),《東京夢華錄》,서울:소명출판。
- 徐兢 著, 조동원 等譯(2005),《고려도경》,서울:황소자리。
- 沈括 지음, 최병규 譯(2002),《몽계필담》,서울:범우사。
- John W. Chaffee 지음, 양종국 옮김(2001),《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서울:신서원。
- 차크 제르네, 김영제 옮김(2003),《전통 중국인의 일상생활》,서울:신서원。

### 〈 中文提要 〉

《夢梁錄》二十卷,宋吳自牧撰。自牧錢塘人,是書全用《東京夢華錄》之體,以紀南宋郊廟宮殿,下至百工雜戲之事。周密《武林舊事》序云:“欲如孟元老夢華而近雅,固謂夢華錄,不足於雅馴矣。而自牧是書之俚俗,殆有甚於夢華錄者。然其言得自見聞,頗為質實,典章文物於是可徵與武林舊事詳略,互見實可資,以稽考故事。首有自序云:‘緬懷往事,殆猶夢也。故名夢梁錄。’末署甲戌歲中秋日書。考甲戌為宋度宗咸淳十年,其時宋未亡也。意甲戌字傳寫舛訛歟。卷五,上里收錄〈九月〔重九附〕〉,〈明禋年預教習車象〉,〈明堂差五使執事官〉,〈駕出宿齋殿〉,〈五輅儀式〉,〈差官較祭及清道〉,〈駕詣景靈宮儀仗〉等內容。

關鍵詞: 夢梁錄, 吳自牧, 臨安, 杭州, 南宋.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3. 27.	2014. 4. 29.	2014. 5. 8.	2014. 5. 24.	2014. 5. 31.